



익산중 이기형 동문, 모교 발전기금 1억원 전달

익산중학교(학교장 이종채)는 지난 10일 이기형 전 동창 회장(12회 졸업)의 학교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기형 동문은 평소에도 모교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고 있던 중 학생복지와 자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이번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이 전 동창회장은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익성학원에 1억원을 기부한 (주)포스모캡 이기홍(15회 졸업) 대표의 친형으로, 형제의 아름다운 기부 릴레이가 동창회와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육군 장교로 입관해 군복무 중에 대간첩작전에서 탁월한 공적을 인정받아 '인헌무공훈장'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전 동창회장은 금마농협 조합장에 재선 농협을 대표하며 지역 농촌경제와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은성 기자

“아동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성장”

더본건설 진재석 대표, '엄마의 밥상'에 성금 500만원 기탁



전주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후원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진재석 대표를 비롯한 더본건설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전주시 '엄마의 밥상' 사업에 사용돼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매일 아침 300명의 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지원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더본건설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과 소외계층을 위한 비빔밥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진재석 대표는 "전달된 성금이 우리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이 꿈을 갖고 열심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태권도 대회·행사 '한의약' 지원 업무협약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국기 태권도 및 한의약 발전'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13일 태권도원 명인관 일여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에는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과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국기 태권도 및 한의약 진흥·보급을 위한 협력', '상호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2022년 6월에 예정된 세계태권도그랑프리 챌린지 등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주요 태권도 대회나 행사 등에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회·행사 참가자 지원 등을 위한 한의약 진로실 운영 등을 논의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우리 협회는 한의약 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라며 "국기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한의약이 더욱 널리 알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이 대회와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외 태권도인과 방문객들에게 태권도와 한의약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태권도와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우주=전문기자



나누리, 인후2동 취약계층에 연탄 1300여장 후원

나누리(회장 김형기)는 지난 11일 인후2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더불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과 강동화 시의장을 포함한 나누리 회원 30여 명은 인후2동 취약계층 5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1800여장을 배달하는 봉사를 했다. 김형기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봉사에 동참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누리는 관내 곳곳을 누비며, 살맛 나고 훈훈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발로 뛰는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우리농업지키기운동 전북본부, 창작 동화책 2000권 전달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병철 NH전북농협 노조위원장)는 13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우리농산물 창작그림동화책 2000권을 전달했다.

우리농산물 창작그림동화책은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가 공모전을 열어 당선된 작품을 모아 발간했으며,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날 전달한 창작동화책 2000권은 도내 14개 시·군 다문화가정센터에 지원될 예정이며, 영어 및 베트남어 등 다문화어에 함께 구성되어 있어 지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철 위원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느끼고 농업·농촌을 사랑하는 미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한편,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는 NH농협 임직원들이 매달 자발적으로 기부한 화비로 운용되는 단체로 동화책 발간사업 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우리농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활동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우체국과 저소득층 행복보험 가입 지원

남원시는 13일, 남원우체국(국장 박민숙)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원시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의 민원의 행복보험'을 공공기관 협력사업으로 협약을 맺게 되었으며, 재해로 인해 사망·수술·입원 시 위로금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남성 1인당 3만3,700원, 여성 1인당 2만2,200원을 우체국에서 지원받게 되며, 차부담금 1만원을 남원시가 부담하게 되어 가입당사자는 부담이 전혀 없이 무료로 가입하고 상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남원우체국은 2022년 1월중 대상자별 자택을 방문하여 사업설명 및 접수·심사를 윈스톱으로 처리해 공공기반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신청대상은 남원시 거주자로 만 15세~65세 이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이며 약 2,500명이 해당된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교육청운전직연합회, 사랑의 장학금 전달

전북교육청 산하 운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운전직연합회(회장 차재영)는 회원 1인당 1만원씩 후원을 받아 장학금을 모금해 성실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부터 학생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하는 동기를 제공하고자 장학사업을 시작해 현재 지역별 연합회에서 후원을 받아 작년까지 어려운 학생 8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는 전라북도 각 14개 시·군 별로 1명씩 총 1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2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달식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서 개별 전달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청 체조팀, 국가대표 3명 배출

13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전국 대학·일반체조선수권대회 겸 2022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북도청 체조팀이 최고의 실력을 선보이며 3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도청 체조팀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전북 체조 강판 스타인 이준호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준호는 단체종량 1위, 개인종합 1위, 도마 1위, 철봉 1위 등 4관왕을 비롯해 평행봉에서도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상욱은 평행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안바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이희준은 개인종합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마루에 나선 김중덕은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가운데 이준호와 전오섭 김중덕 등 3명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청 체조팀 송충현 감독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도자와 선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피해가정에 연탄·이불 후원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이사장 유춘열)는 지난 11일 전주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 도시혁신센터 일원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사랑의 연탄과 이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희망의샘안전봉사대와 TS 교통안전공단 희망MORA 회원 40여명은 전주도시혁신센터 일대 저소득층과 독거 어르신 6가정과 교통사고 피해자 세대 10가정에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1200장과 이불 10채를 직접 배달했다. 기부한 연탄과 이불은 희망의샘 안전봉사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만 원으로 마련했다. 유춘열 이사장은 "노송동 천사마을 목거노인 가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지사서 추천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인후3동 지사협, 소외계층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전주시 인후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정진혜)는 지난 10일 연말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관내 홀로어르신, 다문화 등 소외계층 20세대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했다. 전달된 생필품꾸러미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화장지, 주방세제, 치약세트, 칫솔세트, 핸드워시 및 라면으로 구성됐으며, 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손수 포장해 마련했다. 정진혜 위원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필품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함께 행복한 인후3동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전대 포스코 등 대기업 취업 합격자 배출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문용규)는 학생들을 위한 '감동적인 취업성공프로그램'을 개발, 포스코 등 대기업 취업 합격자들을 배출해 화제다. 그 주인공은 기계과 백민석, 정정규다. 이에 따르면 전주비전대학교는 대기업인 포스코 합격을 위해 하반기 공채 일정이 발표되기 전부터 최종면접 전까지 약 2개월 간 '포스코 공채 시뮬레이션'을 신설해 아낌없이 운영해 왔다. 이력서 컨설팅부터 면접 시뮬레이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고, 취업지원처에서는 학생 면접 시, 면접장소인 '평양'까지 동행했다. 면접에 합격한 백민석 학생은 "포스코에 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기초부터 면접당일까지 교육에 임해 준 교수님과 취업지원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전주비전대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남원시에 성금 기탁

남원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시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500만원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과 강상원 남원시지회장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협회는 남원시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임근홍 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남원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원주 남원시장도 "협화와 더불어 남원시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